

대선·재보선 투표 이렇게

신분증 반드시 지참... 도장은 필요없어

재·보궐선거 지역, 응지 2장에 기표
거동불능자, 보조자 2명과 동반 투표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오전 6시 전국의 각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되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3곳)·광역의원(2곳)·기초의원(4곳) 9곳을 포함 전국 50개 선거구에서는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 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등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일단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다. 가져온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입증한 뒤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으면 신분확인 완료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안내문 봉투에 들어있는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미리 적어두면 투표장에서 손쉽게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찾아간 투표소의 투표권자가 확실한데도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있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투표요원들이 구·시·군 선관위에 전화로 선거인명부 등재결정 통지서 기재내용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러 투표용지 배부적으로 이동하면 12명의 대선후보 이름과 소속 정당명이 인쇄된 백색의 투표용지 1장을 건네받게 된다. 심대명, 이수성 후보가 중도하차했지만 그 이전에 투표용지에 인쇄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 귀퉁이에 있는 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 투입함에 넣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선관위 측이 제공한 기표용구에 한 명의 후보 이름 옆 공란에 찍으면 된다.

장성·장흥·해남군수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별도로 주어지는 또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번 더 기표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투표자가 준비해 있는 잉크를 기표용구에 묻혀 찍어야 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잉크가 내장된 기표용구이기 때문

에 그냥 찍어도 선명한 동그라미가 나온다.

기표소 내에 있는 기표용구 외에 만년필이나 볼펜, 지장 등으로 기표하거나 정해진 기표가 아닌 다른 표식을 남길 경우에는 무효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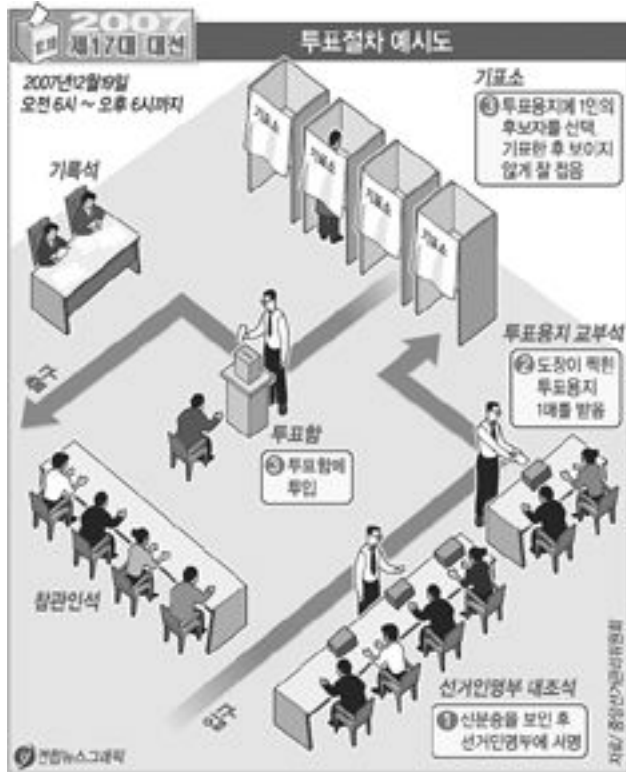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투표 보조용구를 사용하거나,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보조자를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잘 접어서 투표소 중간에 위치한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투표는 끝난다.

부재자 투표 유권자 중 거주투표 대상자는 자택 등에서 기표한 뒤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 신고를 했는데도 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유권자는 해당 투표소에서 확인작업을 거쳐 투표할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수작업 검증 2차례 실시...육안 확인 인력 2배 증원

■개표 어떻게

제17대 대선에서는 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집계된 뒤에도 두 차례의 수작업 검증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개표작업은 각 개표소마다 개표부→투표지분류기 운영부→심사·집계부→위원 점검 및 위원장 공표→개표상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투표함을 연 뒤 기표된 투표용지

를 투표지분류기에 집어넣어 후보자별로 분류되면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작업을 해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된 기표용지 묶음은 개표 사무원이 전량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선관위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투표지 분류기→육안 확인' 작업을 거쳐지만 '개표조작'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며 있어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육안확인 작업 인력을 두 배로 늘렸다.

개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정성 사비를 막기 위해 개표 사무원의 집중력 저하를 막아 좀 더 정확한 개표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선관위는 지난 대선 직후 한나라당이 전자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 일부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지만 이후에도 각종 선거 때마다 '개표조작'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연합뉴스

日, 미사일 공중 요격 실험 성공

고도 100km 대기권 밖에서 표적용 미사일 격추

일본 방위성이 18일 오전 7시(일본시간) 하와이 부근 해상에서 실시한 첫 미사일 공중 요격 실험이 성공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실험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호에서 발사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미군측의 협조로 미군 시설에서 발사된 표적용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해 파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곤고호는 해상에서 수백k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표적용 미사일이 발사되자 고성능 레이더로 탐지, 약 2분 후 SM3을 발사해 고도 100km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표적용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렸다. 미국 이외의 국가가 SM3 발사 실험을 하기는 처음이다.

일본은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금년 3월부터 국내에 배치하기 시작한 지상배치형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3(PAC3)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일본은 이번 실험에 대비해 지난달 하와이 인근에서 미군과 레이더 추적 등 공동훈련을 수차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기 시작한 MD 체계는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SM3로 요격하고, 농철 경우 지상에서 PAC3을 발사해 떨어뜨리는 2단계로 돼 있다.

일본은 다음달 초순부터 SM3의 실전 배치를 시작, 2010년 말까지 SM3 탑재 이지스함을 사세보와 마이쓰루 등 동해쪽 기지에 3척, 수도권의 요코스카함에 1척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PAC3은 금년 3월 사이타마현 이부타기, 11월에는 지바현 나라시노기지에 배치한 데 이어 2012년까지 모두 11개 지역에 16개 세트를 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요격용 스탠더드 미사일이 17일 하와이 카우아이의 태평양 미사일 발사장에서 일본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적재 구축함 콩고호로 부터 발사되고 있다. 일본은 이날 시험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해상의 배에서 격추시킨 최초의 미국 맹방이 됐다. /연합뉴스

“올 지구촌 작년보다 평화로웠다”

“올해 지구촌은 작년보다 평화로웠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가 17일 내린 올해 지구촌에 대한 평가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전쟁 등 국제분쟁은 모두 31건으로 지난해 36건보다 5건 줄었다.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곳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단 다르푸르, 소말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6곳. 미얀마

군정에 무자비하게 진압된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하마스과 파타한 전투, 터키와 쿠르드반군간 분쟁 25개 지역 분쟁은 ‘심각한 위기’로 분류됐다.

국제 분쟁은 찾아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무력충돌도 올해 여성과 어린이 등 수천명이 희생됐다.

연구소의 로타 마이어는 유감입들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무

국제분쟁 31건...작년보다 5건 줄어
이라크·아프간 등 6곳 전쟁 진행중

력충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해결점을 결코 찾을 수 없는 장기 분쟁도 국제분쟁의 한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델베르크 소재 평화연구·안보정책 연구소의 볼프강 쾰너 부소장은 “전 영역에 걸쳐 분쟁이 줄어드는 추세임이 분명해졌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 합의와 최근 미국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중동평화 회담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연합뉴스

인간의 뇌, 후각으로 친구·적 구분

인간의 뇌는 후각을 이용해 친구와 낯선 사람을 구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길 대학 신경학연구소의 요한 툰드스트롬 박사는 인간의 뇌는 일상적인 냄새와 사람의 체취를 처리하는 신경회로가 따로 있어서 체취를 통해 친구

와 낯선 사람을 구별한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16일 보도했다.

툰드스트롬 박사는 실험지원자들에게 자신의 체취, 친구의 체취, 낯선 사람의 체취 그리고 일상생활의 냄새를 각각 맡게 하고 양전자방사단층촬영(PET)으로 뇌를 관찰한 결과, 사람의 체취와 일상생

활 냄새가 처리되는 신경회로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낯선 사람의 체취를 맡았을 때는 공포와 위험에 반응을 나타내는 뇌부위인 편도체와 도피질이 활성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후각 시스템이 생존이나 짝짓기와 관련된 냄새는 중요한 자극으로 분류해 특정 신경회로를 통해 한층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툰드스트롬 박사는 말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광주고시학원

새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 개강 1월 2일... 새롭 행정고시학원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알뜰상 ₩190,000원... 으뜸상 ₩330,000원... 대기족상 ₩880,000원... 소기족상 ₩450,000원... 담양한과